



# 응애(龍崖) 신응태(申應泰)의 삶과 시세계



김 용 남 | 전 충북대학교 강사

1. 머리말
2. 생애와 교유
3. 저술과 시세계
4. 맺음말

## 1. 머리말

신응태(申應泰, 1643~1728)는 청주 미원에서 활동한 학자로 충혜왕 때 안렴사를 지낸 퇴재(退齋) 신우(申祐)의 11대손이며 충효를 겸전한 양일당(養一堂) 신지익(申之益)의 손자이다. 효자 신심(申鑣)의 아들이며 효자 신협(申鍊)의 종질(從姪)이다. 효문에서 태어나 어질고 효성스런 행실로 향유들의 신망이 높았다.

신응태는 천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성품과 행실이 높고 뛰어났다. 어린 나이에 부친과 조부를 여의었지만 집상(執喪)의 의젓함이 성인과 같았다. 조금 자라서는 조모와 모친을 지극히 봉양하는 한편 사서를 읽으며 정미한 뜻을 구하였다. 부친의 명을 받들어 19세에 처음 과장에 들어갔고, 문학을 일찍 성취하여 20세에 연이어 두 과방에 참여하니 만주(晩洲) 홍석기(洪錫箕)가 시권을 보고 크게 칭찬하였다. 그 후 대소과 초시에 여러 번 입격하였으나 시운이 돌보지 않아 향리의 처사로 지냈다.

25세에 회덕에 가서 우암 송시열을 뵈 후로 화양동과 회덕을 왕래하며 강문(講問)하였고, 『주서절요(朱書節要)』와 『근사록(近思錄)』을 읽고 그 긴요한 것을 간추려 책을 만들기도 하였다. 42세에 비로소 과업을 폐하고 화양동에 들어가 스승 송시열에게 집지(執贄)의 예를 올리고 오로지 성리학에 전념하였다.<sup>1)</sup> 학력(學力)이 순수하고 깊으며 조예가 정밀하였고 학문을 좋아하

는 정성은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였다. 이렇듯 학업은 밝게 빛나고 기절은 높아 스승 송시열이 특별히 추천하여 인정하였다. 그런 까닭에 김창협(金昌協)은 일찍이 ‘우암의 고제(高弟)’로 추송하였고, 권상하(權尙夏)는 ‘일대의 선사(善士)’라 하였으며, 이수언(李秀彦)은 ‘사람됨이 충후하고 순수해서 고인의 풍모가 있다’고 하였다.

신응태는 타고난 효성으로 부모를 지극히 섬겼고, 『선세사실(先世事實)』을 엮는 등 계술(繼述)의 효를 다하였다. 또한 문학에 소질이 있어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사서삼경과 제자백가의 글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역학(易學)·천문(天文)·역수(曆數)에도 밝았다. 만년에는 후진 양성에 힘써 문학에서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고 타고난 문장으로 비록 다작은 아니지만 시문도 적잖이 남겼다. 본고는 그가 남긴 『용애집(龍崖集)』을 통해 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인인 신응태의 삶과 교유, 그리고 시세계의 일단을 살펴 학계에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2. 생애와 교유

### 1) 생애

신응태(申應泰)는 자(字)가 길래(吉來)<sup>2)</sup> 호(號)는 용애(龍崖)이며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고려 말 혼탁한 세상을 피해 경북 의성(義城)에 퇴거한 안렴사(按廉使) 신우(申祐)가 그의 11대조이다. 이후 대대로 선조들이 살았던 의성으로부터 청주 독박리(禿朴里)<sup>3)</sup>로 이거한 상의원(尙衣院) 직장(直長) 신간(申幹, ?~1539)<sup>4)</sup>이 그의 5대조이다. 고조는 신천령(申千齡)이고 증조는 문행(文行)이 있고 성품이 강직했던 생원 신노(申櫓, 1553~1590)<sup>5)</sup>이다. 조부는 학행과 효행으로 널리 알려진 참봉 양일당(養一堂) 신지익(申之益, 1588~1649)<sup>6)7)</sup>이다. 부친은 천성이 순하고 행의(行

1) 宋秉夔, 『華陽淵源錄』 제3편 門人. “申應泰: 字吉來, 癸未生. 號龍崖, 鵝洲人. 孝子鐔之子, 貞肅公祐之后. 官副護軍, 以學行見重焉. 有文集. 先生作「申氏先世事實跋」. 居清州.”

2) 初名은 應漑이며 初字는 澄叟이다.

3) 현재 청주시 낭성면文博里이다.

4) 申幹의 부인은 玄風郭氏로 栗峯察訪을 지낸 郭原道의 딸이다. 『鵝洲申氏大同譜』 참조.

5) 申櫓(1553~1590): 자는 汝涉으로 剡溪 李潛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감의 아들 西溪 李得胤(1553~1630)과는 동년으로 유년의 벗이다. 1573년 형 申櫟과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생부는 申千齡의 季弟 申彭齡(1517~1582)이다. 신평령은 櫟櫓 두 아들에게 <晦庵訓子從學帖>을 써주었다. 申應泰, <書曾祖考生員府君所寫宋文公訓子從學帖後>, 『龍崖集』 권3 참조.

6) 申之益(1588~1649): 자는 舜舉 호는 養一堂이며 시에 능하였다. 이득윤의 문인으로 성품이 강직하여 광해군 때 두 번이나 상소하여 이이첨의 죄를 논핵하였다. 冶溪에 경사를 짓고 程子の ‘涵養吾一’의 말을 취하여 ‘養一’로 편액을 거니 이득윤의 玩易齋와 더불어 구름과 안개처럼 서로 겹쳐서 왕래하며 종유하였다. 孝廉으로 추천되어 朝散大夫 永崇殿參奉를 제수 받았다. 아들 鐔과 그의 從弟 鍊이 모두 효자로 효종 조부터 숙종 조에 이르기까지 청주에서 兩世 三孝의 사적을 올려 모두 경려되었다. 『光海君日記』, 13년(1621) 윤 2월 8일, 12일자와 宋時烈, <永崇殿參奉申公墓表>, 『宋子大全』 권196 참조.

義)로 스스로를 지키며 효성이 깊었던 처사 신심(申鑾, 1611~1647)<sup>8)</sup>이고 모친은 광주반씨(光州潘氏) 반봉익(潘鳳翼)의 딸이다.

신응태는 1643년(인조 21) 청주 산동면(山東面) 송곡리(松谷里)<sup>9)</sup>에서 태어났다.<sup>10)</sup> 천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성품과 행실이 높고 빼어났다. 5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7세에 조부상을 당하였다. 8세(1650년)에 비로소 송곡공(松谷公) 신응사(申應泗)<sup>11)</sup>에게 배웠다. 12세인 1654년 조모 평강전씨(平康全氏)<sup>12)</sup>를 모시고 괴산에 가서 감역공(監役公)<sup>13)</sup>으로부터 선조 안렴공(申祐)의 효행사적을 듣고 돌아와 후에 <선세사실(先世事實)>을 완성하였다.

13세에 『맹자』와 『중용』을 읽었다. 정미한 뜻을 이해하고자 송곡공에게 질문하니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17세에 산방에 들어가 가정공(佳亭公)<sup>14)</sup>과 함께 『논어』를 읽었다. 19세에 처음 과장에 들어갔고 20세인 1662년 풍산김씨(豐山金氏)를 아내로 맞으니 첩지 김시좌(金時佐)의 딸이다. 그리고 이해 향시에 입격하였다. 문학을 일찍 성취하여 연이어 두 과방에 참여하니 시골의 오랜 친구들이 영광스러워하였다. 이때 만주(晩洲) 홍석기(洪錫箕, 1600~1680)가 와서 시권을 보고 크게 칭찬하였다. 또한 겨울에 『주역』을 읽었다.

25세에 회덕에 가서 우암(尤庵)·동춘(同春) 두 선생을 뵈었다. 이듬해 7월 조모 전씨 상을 당하였다. 27세인 1669년 『주서절요(朱書節要)』를 읽었고, 29세인 1671년 홍석기에게 조부 양일당공과 부친 처사공의 사적을 적어 보내며 아울러 쌍죽도(雙竹圖)에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하여 오언시 10운을 받았다.<sup>15)</sup> 한편 화양동으로 우암 선생을 찾아뵈었다. 30세인 1672년 여름, 괴산 소마사(小馬寺)<sup>16)</sup>에서 과거 문장을 공부하였고, 별시 초시에서 부(賦)·책(策)으로 입격하였으

7) 1655년(효종 6) 申鈇, 1683년(숙종 9) 申之益·申鑾이 효행으로 정려되었다. 1703년(숙종 29) 三孝를 합설하여 三孝閭를 세웠고, 文巖 鄭澐가 <三孝事實記>를 지었다. 그 후 1762년 중수하였고, 송시열의 현손 宋可相이 <三孝閭重修記>를 지었다. 申鈇(1617~1691)은 자가 子長 호는 松坪으로 신지익의 중형 申之仁의 아들이다. 청주시 미원면 가양리 솔골에 三孝閭가 있다.

8) 申鑾(1611~1647): 자는 士佩이다. 병자호란 때 부모를 모시고 산중에 피하는 중 갑자가 적병을 만났는데 자신의 몸으로 부모를 막고 슬피 울면서 살려줄 것을 청하니 적도 감히 어찌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 병에 斷指하여 구완하였다. 생부는 신지익의 백형 申之亨이다.

9) 현재 청주시 미원면 가양리 솔골[松洞] 마을이다.

10) 이하 생애는 <年譜>·<行錄>·<墓表>를 참고하였다.

11) 申應泗(1630~1675): 자는 源魯 호는 松谷이다. 문장이 훌륭하고 예학이 고명하였으며 군자의 품모가 있었다. 대사헌에 증직되었다. 養幽齋 李萬濟·晩洲 洪錫箕와 道義의 교분을 맺었고 시에 능하였다. 신응사는 신응태의 四從兄(생가로는 三從兄)이다.

12) 조모는 平康全氏 全有亨(1566~1624)의 딸이다. 전유형은 괴산의 유생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594년 청안현감에 임명되었고 광해군 즉위 후 광주목사·형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이이침을 탄핵하는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1624년 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난군과 내응했다는 무고를 받아 참형을 당하였다. 그 뒤 신원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742년 괴산의 花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鶴松集』이 있으며 시호는 義敏이다. 『平康全氏派譜』 참조.

13) 全錫(1602~1666)이다. 자는 謙汝 호는 止善으로 전유형의 삼남이다. 四山監役을 지냈고 효행으로 호조정랑에 증직되고 정려되었다. 전습은 이때 괴산에 살고 있었는데, 신응태에게 『三綱行實』 속의 雙竹圖를 보여주며 안렴공(申祐)의 효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4) 申應涑(1645~1711): 자는 德叟 호는 佳亭으로 송곡 신응사의 아우이다.

15) 이때 받은 시는 『龍崖集』에도 홍석기의 『晩洲遺集』에도 없다.

며, 식년 초시에서 또 입격하였다. 그리고 회덕에 가서 동춘 선생을 곡하고 우암 선생을 뵈었다. 1673년 2월 회시(會試)에 낙방하였다. 모친의 병이 깊어 과거를 보지 않으려 했으나 모친이 권하여 부득이 본 것이다. 과거를 보고 돌아와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그 슬픔이 지나쳐 만나절을 기절하였다.

1674년곽세건(郭世健)이 송시열을 모함하자<sup>17)</sup> 스승의 무고를 변론하는 논설을 지었다. 1675년 덕원(德原) 적소에 계신 우암 선생께 편지를 올렸다.<sup>18)</sup> 1675년 11월, 사사했던 송곡공상을 당하자 자신을 생장시킨 스승의 의리로써 가마(加麻)하였다. 1679년 『주서절요(朱書節要)』와 『근사록(近思錄)』을 순환하며 읽고 그 긴요한 것을 간추려 2권을 만들었다. 38세인 1680년 묵방(墨坊)<sup>19)</sup>에 계신 우암 선생을 찾아뵈었다.<sup>20)</sup> 1681년 화양동에 가서 우암 선생을 뵈고 겨울에 또 우암 선생을 뵈었다. 이듬해 봄에도 우암 선생을 뵈었다. 41세인 1683년 농계(農溪) 이수언(李秀彦, 1636~1697)에게 편지를 보내 조부와 부친을 현양하는 일을 갖추어 말하였다. 이해 5월 이수언이 회계(回啓)하였고 10월 임금의 특명으로 정포(旌褒)되었다. 42세인 1684년 4월, 과거의 생각을 끊고 드디어 우암 선생께 집지(執贄)의 예를 올리고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1685년 3월에 화양동에 가서 우암 선생을 뵈고 양일당의 묘표를 청하였다. 이때 화양동에서 하루 머물며 파곶(巴串)에 모시고 가서 놀다 돌아와 환장암(煥章庵)에서 잤다. 4월에 권상하(權尙夏, 1641~1721)·김창협(金昌協, 1651~1708)을 만나 화양동에 가서 우암 선생을 뵈었다.<sup>21)</sup>

1686년 9월 화양동에 가서 우암 선생을 뵈었다. <선세사실(先世事實)>이 편집되어 스승께 보여 드리고 명명(命名)과 아울러 권두의 글을 청하기 위함이었다. 송시열은 서수(書首)에 ‘아주신 씨선세사실(鵝洲申氏先世事實)’이라 쓰고 권말에 발문을 써주었다. 1687년 화양동에 가서 우암 선생을 뵈었다. 이때가 스승 생전 마지막이었다. 47세인 1689년 제주 적소에 있는 우암 선생께 편지를 올렸다. 5월 송시열이 제주로부터 상경하라는 명을 받자 천안에 가서 기다리다 드디어 대궐에 나가 스승을 신원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전달되지 못하였다. 6월 스승이 정음에서 후명(後命)을 받자 연산(連山)에서 곡하며 맞이하고 상여를 따라 수원에 이르러 글을 지어 제사 드리고 병이 나 집으로 돌아왔다.

16) 小馬寺는 괴산 普光山에 있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槐山郡.

17) 송시열은 1674년 8월 현종이 승하하자 속종의 명에 따라 현종의 誌文을 짓기 위하여 상경한다. 그런데 도중에 영남 유생 郭世健의 상소가 올라오자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肅宗實錄』, 즉위년(1674) 9월 2일, 25일자.

18) <年譜>에는 갑인년(1674)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하였다. 송시열이 함경도 덕원에 유배된 것은 1675년 1월이다.

19) 현재 청주시 미원면 내산3구 墨坊 마을이다.

20) 이른바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송시열 또한 거제 유배에서 풀려났다. 화양동으로 들어가려고 묵방 洪靑炳의 집에서 쉬 때 신응태가 가서 뵈고 홍주병과 함께 스승을 모시고 靑川에 갔다가 돌아왔다. 홍주병(1654~?)은 자가 文伯 본관은 南陽이다. 아우 洪靑亨·洪靑華와 함께 삼형제 모두 송시열의 제자로 『華陽淵源錄』에 이름이 올라 있다.

21) 『近思錄』 가운데 글의 뜻이 의심되는 부분을 스승께 질문하였다. 황강과 농암이 함께 모시고 앉아 있었고, 수일을 머물며 心經의 의심나는 곳을 강독하였다. 이때 김창협이, “이 사람은 文詞가 성실한 門下의 高弟”라고 하였고, 권상하는, “학문의 힘이 순수하고 깊으니 가히 일대의 善士”라고 하였다.

48세인 1690년 산방에 들어 독서하였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산방으로 피해 동방 제현의 문집을 모아 그 긴요한 것을 간추려 1권으로 만들어 때때로 펼쳐보다 몇 달 만에 돌아왔다. 그 후 용애(龍崖)로 이거하고 인하여 호로 삼았다. 1693년(51세) 민박사(民朴寺)<sup>22)</sup>를 중건하였고 1694년 3월 부인 김씨 상을 당하였다. 4월 우암 선생 복관(復官) 치제(致祭)에 시를 지었고, 1695년 만경대서원(萬景臺書院)이 완성되어 시를 지어 원장[권상하]에게 올리고 여러 친구에게 보였다. 55세인 1697년 이수언을 곡하였다. 이수언과는 지기(知己)였다. 이수언은 일찍이 신응태의 문장을 칭찬하여, “당세의 전형이어서 적수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1699년(57세) 『사서제요도(四書提要圖)』 2권을 완성하였고, 『사문서설(斯文序說)』 1권을 지었다.<sup>23)</sup> 59세인 1701년 직재(直齋) 이기홍(李箕洪, 1641~1708)을 방문하였다.

1703년(61세) 12월 장암(丈巖) 정호(鄭浩, 1648~1736)를 방문하였고,<sup>24)</sup> 1704년(62세) 신종황제 제사를 청하는 상소를 썼으나 올리지 못하였다.<sup>25)</sup> 1705년(63세) 2월 문산(文山)에 가서 이기홍을 방문하여 <선세사실(先世事實)> 발문을 받았다.<sup>26)</sup> 66세인 1708년 이기홍과 김창협(金昌協)의 부음을 듣고 곡하였다. 1710년(68세) 2월 김정구(金鼎九)의 효행에 관한 글을 세 번 올렸다.<sup>27)</sup> 1711년(69세) 3월 가정공을 곡하고 1716년(74세) 11월 <화양서원선액기(華陽書院宣額記)>를 지었다. 75세인 1717년(숙종 43) 3월, 임금이 온천에 행행 시 조부 양일당의 사적을 적은 글을 올렸다. 1719년(77세) 『사서제요도(四書提要圖)』를 권상하에게 올리고 수정을 청하였다. 1721년(경종 1) 권상하의 부음을 듣고 곡을 하고, 순찰사에게 정유년 온양 행차 시에 상계 올린 말에 기초하여 양일당 현양의 일을 올렸다. 82세인 1724년 여름에 병이 나 닉 달을 병석에 있었는데 장자 상록의 부인 이씨가 극력 구완하니 사람들이 모두 효부라 하였다.

1728년 <사론시비옥하사담(士論是非屋下私談)> 1권을 완성하니, 동서분당부터 신임사화까지 피차 사정득실(邪正得失)의 본말을 통쾌히 논변한 것이다. 6월에 병이 나 8월 15일 86세로 송곡(松谷)에서 생을 마쳤다.<sup>28)</sup> 문인 송윤상(宋允相)·정후기(鄭堉基)·신흥찬(申弘燦) 등이 글을

22) 民朴寺는 문박산에 있는 아주신씨의 墳庵이다. <民朴寺夜話錄>은 증조 申櫓의 필체이다. 민박사는 임진년 병화에 폐하여 門族의 여러 사람이 중건하였다. 이 기록의 追跋은 응태가 썼으며 추발의 해는 1693년으로, 증조가 사마에 오른 후 121년이다. 申應泰, <題民朴寺夜話錄後>, 『龍崖集』 권3 참조.

23) 신응태의 好學之誠은 늘을수록 더욱 돈독하여 종일 성현을 대하였다. 밤과 새벽 사이 외우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아 젊고 기운갈 때와 같았고 淸貧自守하였다.

24) 정호가 이때 丈巖洞에 있었는데 신응태가 찾아가 <先世事實> 권두의 글을 청하자 跋文을 지어 주었다. 후에 정호가 신응태를 추천하려고 하였는데, 신응태가 그것을 알고 이로부터 교유가 드물었다.

25) 신응태가 상소를 쓸 때 다 갖추어지지 않아 올리지 못하는 사이 화양동에 만동묘가 세워지고 조정에서 또 대보단을 만들었던 까닭에 끝내 상달하지 못한 것이다.

26) 이기홍은 신응태와 교의가 두터웠다. 이때 신응태에게, “志學이 게으르지 않아 늘어갈수록 더욱 도탑다. 선세의 일과 뜻을 이어 족히 한 집안의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스스로 鄉曲에 거하여 세상에 아는 자가 없으니 애석하다”고 하였다. 1702년 延豊의 文山에 壽樂亭을 짓고 황강에 살던 권상하와 장암에 살던 정호 등과도 교유하며 지냈다.

27) 金鼎九는 慶州人으로 1729년 효행으로 정려되었다. 아우 셋을 아울러 효행으로 上聞하니, 증조조좌랑 鼎五·증좌승지 鼎三·생원 鼎一이다.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에 효자정려가 있다.

28) 신응태의 묘소는 청주시 미원면 가양리 산 6-1에 있다.

지어 제사지냈고, 청주 검암서원(儉巖書院)에 배향되었다. 부인 풍산김씨와의 사이에 육남(六男)을 두었으니, 상전(尙籛)·상록(尙籛)·상침(尙籤)·상주(尙籛)·상범(尙範)·상림(尙霖)이다.<sup>29)</sup>

신응태는 조부와 부친이 모두 효행으로 정려된 효문의 후손답게 타고난 효자였다. 어린 나이에 부친과 조부를 잃고도 조석제전(朝夕祭奠)에 성인 같은 의젓함을 보이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특히 평소 기가 허한 모친을 위해 조섭에 세심하였고 위급에 미쳐서는 단지(斷指)하였으며 마침내 돌아가시자 애훼(哀毀)가 극에 달아 예를 넘어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러도 여막을 떠나지 않고 거상(居喪)을 거두지 않았다. 또한 그의 효행은 계지술사(繼志述事)로 드러난바, 부친의 뜻을 받들어 과업에 힘쓰고 평생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선조사실기(先祖事實記)』를 완성하고 조부와 부친의 행적을 현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그것이다.

신응태는 학문을 좋아한 천생 학자였다. 부친의 명으로 과장에 출입하여 대소과 초시에 일곱 번 합격하고도 시운이 돌보지 않아 이룬 바는 없었으나 그 또한 개의치 않았다.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과거를 폐하고 우암 송시열의 문하에서 성리학에 전심하였다. 대개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은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였다. ‘당리무사(當理無私)’<sup>30)</sup> 네 글자를 평생 공부로 삼았고, 스승 송시열의 글[宋子之書]을 가장 좋아하여 동정어묵(動靜語默)에 한 가지로 법 삼았다.<sup>31)</sup> 또한 남는 힘으로 글을 배우며 문단에서 노니니 문장이 아름다웠다. 대개 그 처음 뜻이 초월함을 벗어나고 화려함을 씻어내며 오로지 실지(實地)에 뜻을 두었다.

신응태는 청빈자수(淸貧自守)한 선비였다. 생계를 세우려 하지 않았고 재물과 이익에 대한 이야기는 일찍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화양(華陽)의 고족(高足)이 되어 동문 한수(寒水)·농암(農巖)·농계(鰲溪)·직재(直齋) 등 제현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용애 선생(龍崖先生)으로 일컬어졌으며 만년에 문인들이 사사하니 후학을 양성하는 보람이 있었다.

## 2) 교유

신응태가 교유한 인물은 대부분 우암 송시열에게 배운 동문과 동향의 향유들이다.

홍석기는 일찍이 8세 무렵 신응사를 사사할 때부터 만난 듯하다. 앞서 살펴본바 신응태는 이때 비로소 송곡공 댁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고, 신응사와 홍석기가 도의로 교분을 맺은 사이였으니<sup>32)</sup> 두 사람이 왕래할 때 자연스럽게 뵈었을 것이다. 그 후 신응태가 문학을 일찍 성취하여 20세에 연이어 두 과방에 참여하였고, 이때 홍석기가 와서 시권을 보고 크게 칭찬한 일이 있었으

29) 이 중 상전은 신응사에게, 상침은 신응숙에게 出系하였다.

30) 『論語』「公治長」의 18장 주에, “내가 스승께 들으니, 이치에 합당하고 사심이 없는 것이 仁이다 愚聞之師, 曰, 當理而無私心, 則仁矣”라 한 데서 온 말이다.

31) 또한 학문하는 데 가장 긴요한 문자인 朱子書를 抄하여 평생 가슴에 새기는 터전으로 삼으며, “돌아가신 스승께서 평생 一動一靜을 모두 朱夫子로써 기준을 삼으셨는데 내가 비록 불만하나 어찌 스승의 사업을 본받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32) 주석 11) 참조.

니, 신응태는 어려서부터 홍석기에게 시도 배웠을 것이다. 1671년 3월에는 홍석기에게 편지를 보내며<sup>33)</sup> 시를 청하여 받기도 하는 등 신응태에게 홍석기는 스승과 같은 존재인데, 특히 시문에 조예가 깊었으니 평소 사백(詞伯)으로 모신 듯하다.<sup>34)</sup>

이수언<sup>35)</sup>과는 지기지우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이수언은 이색의 12대손으로 고조 때부터 선조들이 청주 목계(墨溪)<sup>36)</sup>에서 살았다. 그 또한 선조들의 터전을 이어받아 목계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수언은 1674년 곽세건(郭世健)이 스승 송시열을 모함하자 상소하여 그를 논척한 일로 체직되었고, 이듬해인 1675년 체환되었으나 당시 전라도관찰사로 나가 있던 부친이 그해 겨울에 돌아가시자 고향 청주 목계로 돌아와 세사에 뜻을 끊었다. 그 후 1680년 다시 벼슬길에 나가기까지 5년 동안 고향집에 머물렀다. 이수언은 이때 고향 판교(板橋, 미원)로 돌아와 검단산 아래에 후운정(後雲亭)을 짓고 말년을 보내고 있던 홍석기를 시 스승으로 모시고 목계와 미원 단계(丹溪)를 오가며 시교(詩交)에 힘썼다.<sup>37)</sup>

문집에는 이수언에게 준 시가 5수 있는데, <차운정목계(次韻呈墨溪)> 3수 중 첫 번째 시<sup>38)</sup>를 통해 이수언과의 교유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시는 1674년 체직되어 떠나는 이수언을 이별한 후 1675년 겨울 벗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납매(臘梅)를 들고 이수언이 목계에 마련한 집을 찾아가 술잔을 나누며 새롭게 사귀는 정에 보답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렇다면 둘 사이의 교유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이지만, 이수언이 고향에 머무는 5년 동안 본격적인 시교(詩交)가 이루어진 듯하다. 앞서 얘기했듯 이수언 또한 이 시기에 홍석기를 시 스승으로 모시고 목계와 단계를 오갔기 때문에 미원 스승 댁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이수언은 신응태의 문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sup>39)</sup> 이후로도 신응태는 1683년 이수언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 편지를 보내 조부와 부친을 현양하는 일을 의논하는 등 집안의 대소사도 함께 나누었다.

33) 申應泰, <上晚洲洪文書>, 『龍崖集』 권1.

34) <年譜>에, 홍석기는 시재가 민첩하여 양의 竟陵王이 밤에 여러 학사를 모아 시회를 열고 사람을 시켜 銅鉢을 치면서 시를 재촉할 때 동발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四韻詩를 완성했던 蘇文琰과 같다는 칭송이 있다고 하면서, 신응태와 홍석기는 해가 더할수록 契誼가 각별하였다고 하였다.

35) 李秀彦(1636~1697):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자는 美叔 호는 龔溪 醉夢軒이며 본관은 韓山이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1695년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전주 威鳳寺에서 송시열의 유고를 1질 수정·등사하였다. 拙稿, 『龔溪 李秀彦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연구』 제23호, 한국한시학회, 2015, 186쪽.

36) 현재 청주시 내수읍 墨坊里이다.

37) 앞의 拙稿, 184~186쪽 참조.

38) 申應泰, <次韻呈墨溪>, 『龍崖集』 권1. “멀리 고향 산 눈 쌓인 곳 가리키니, 소나무 가래나무 깊은 곳에 한 초막이 있네. 도성 문에서 체파되어 가는 고관을 전별하였는데, 시골 궁벽한 거리에서 재상이 온다고 다투어 전하네. 천리의 벼슬살이 백발 드리우고, 백년의 근심과 즐거움 깊은 술잔에 붙이네. 단지 저녁 경치 그윽한 흥취에 이바지하니, 새로 사귄 정 납매로 보답할 것을 이미 깨닫네 遙指鄉山亂雪堆, 松楸深處一庵開, 都門遞罷公卿餞, 村巷爭傳幸相來, 千里宦遊垂白髮, 百年憂樂付深盃, 祇教晚景供幽興, 已覺新情報臘梅”

39) 신응태는 <又次謝墨溪>(『龍崖集』 권1)에서, 거칠고 노둔한 문재(踈魯文才)를 너무 칭찬하여 동쪽 도읍 처사의 오두막을 추천하니 知극을 만난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又過許文才每讓一頭詩以辭謝>는, 이수언이 지나치게 文才를 허여하며 매번 시의 첫 자리를 양보하기에 이에 사양하는 뜻으로 지은 것이다.

권상하·김창협과는 43세인 1685년 1월 화양동에서 만난 후로 3월과 4월에 서로 만나 화양동에 가서 우암 선생을 함께 뵈었다. 김창협은 신응태를 ‘우암의 고제[尤庵之高弟]’로 추송하였고, 권상하는 ‘일대의 선사[一代之善士]’라 하였다. 신응태는 1719년(77세)에 『사서제요도』를 권상하에게 올리고 수정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기홍과는 1701년 그가 청풍부사로 있을 때 직접 방문할 정도로 교의가 매우 깊었다. 1705년(63세) 2월에는 연풍(延豐) 문산(文山)에 가서 <선世事(先世事實)> 발문을 받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바 이기홍은 문산에 수락정(壽樂亭)을 짓고 권상하·정호 등과도 교류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때 신응태도 이기홍의 수락정에서 이들과 한두 번은 어울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기홍은 신응태가 향곡의 선비인 까닭에 세상에 드러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길래(吉來)에게 있어 무슨 손익이 있으랴. 나는 길래에게 감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암(旅庵) 강흡(姜洽, 1602~1681)<sup>40</sup>과의 교류도 엿볼 수 있다. 강흡은 병자호란 이후 태백산에 은거하여 심장세(沈長世)·홍석(洪錫) 등과 함께 ‘태백오현(太白五賢)’으로 일컬어진다. 문집에 신응태가 강흡에게 올린 시가 2수 있다. <봉정여암적소(奉呈旅庵謫所)>는 강흡이 유배중일 때 적소에 올린 것이고, <여암방환후봉정일율(旅庵放還後奉呈一律)>은 해배되어 돌아온 후 올 시를 지어 올린 것이다. 신응태의 지기인 이수언 또한 일찍이 강흡과 교류한 흔적이 있는데,<sup>41</sup> 이로 보면 세 사람이 함께 교류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울러 신응태와 이수언의 교류 시기도 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

끝으로 문집에 있는 매화와 국화를 소재로 한 시를 통해 송동과 가까운 가양리 수락동에 살았던 양유재(養幽齋) 이만제(李萬濟, 1628~1677)와는 시교(詩交)가 빈번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김정일(金鼎一)에 대한 만시는<sup>42</sup> 두 사람이 금란지교(金蘭之交)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 3. 저술과 시세계

#### 1) 저술

신응태는 『용애집(龍崖集)』 4권1책을 남겼다. 권두에 서문 2편이 있다. 1944년 김성환(金成煥)이, 그리고 1968년 성구용(成九鏞)이 지은 것이다. 김성환은 신응태를 당나라의 은사 동소남

40) 姜洽(1602~1681):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晉州이다. 金長生·申欽에게 사사하였다.

41) 강흡의 山居에 대해 이수언은, 옛날 소시 때 太白處士를 驪興의 촌사에서 만나 山居之趣에 대해 물으니 姜君이 丘壑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었다고 하였다. 이수언은 28세인 1663년 西原庄舍에서 <旅庵記>를 지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690년 理州에 유배중일 때 그곳 江坪에 머물며 우연히 <旅庵記>를 다시 열람하게 되면서 그 전말을 기록한 <題旅庵記後>를 지었다. 李秀彦, <旅庵記>·<題旅庵記後>, 『聾溪先生遺稿』 人 참조.

42) 申應泰, <挽金生員鼎一>, 『龍崖集』 권1.



(董召南)에 견주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뛰어나며 고인의 풍모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어 화양부자(華陽夫子)를 사사하고 학문의 길은 주자를 종주로 삼아 학문에 정통하고 밝았으며 도덕은 높고 깊어 드디어 우암의 고족(高足)으로 부드럽고 강직한 사이에 인정을 받았고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하여 추중(推重)이 있었다고 하였다. 성구용은 견문과 학식이 넓고 의지와 기개가 높았다고 하면서 효우와 학문이 향방(鄉邦)에서 칭송되었다고 하였다. 서문 다음에는 목록(目錄)이 있다.

권1은 우선 시 31제 37수이다. 이 중에는 매화와 국화를 소재로 한 것이 10수이고, 화양동에서 스승을 모시고 강학·청유하던 모습을 회고한 것과 스승 사후 추모의 정을 담은 것이 있다. <임술납월지망후자하세장병소서(壬戌臘月之望候紫霞世丈并小序)>는 1682년 12월 보름에 자하(紫霞) 어른을 기다리며 지은 것으로 모두 4수이다. <동황강권지평농암김청풍배우암선생유파곳시조유우의향만개제(同黃江權持平農巖金淸風陪尤庵先生遊巴串是朝有雨意向晚開霽)>는 권상하·김창협과 함께 스승을 모시고 파곳에서 놀던 감회를 읊은 것이다. 다음 조부와 부친의 효행 정표 후 회포를 서술한 <양세정표후근차술회(兩世旌表後謹次述懷)>와 선세사실을 완성한 후에 지은 <선세사실성후근차일률(先世事實成後謹次一律)>이 있다. 한편 지기(知己) 이수언에게 준 것과 효우로 신망이 높았던 향유(鄉儒) 민유(閔維)와 효행으로 정려된 생원 김정일(金鼎一)에 대한 만시가 있다. 다음 소(疏) 4편이 있다. 문묘종사 개정에 관한 <문묘종사개정의소(文廟從祀改正議疏)>와 1689년 송시열에게 후명이 내린 후 지은 <청대우암선생소(請貸尤庵先生疏)>, 신종황제의 제사를 청하는 <청사신종황제의소(請祀神宗皇帝擬疏)> 등이다. 이어 서(書) 8편이다. 1684년 신응태가 송시열에게 본격적으로 문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예를 갖추어 글로 올린 <상우암선생서(上尤庵先生書)>와 홍석기에게 삼강행실 속 쌍죽도(雙竹圖)에 대한 시를 청하는 <상만주홍장서(上晚洲洪丈書)>, 권상하에게 <사서도(四書圖)>의 서문을 청하는 <상수암권장서(上遂庵權丈書)>, 사인(士人) 김정구의 효행에 대한 정포(旌褒)를 청하는 <청포김정구효행문(請褒金鼎九孝行文)> 등이다.

권2는 잡저(雜著) 5편이다. <사론시비옥하사담(士論是非屋下私談)>은 1659년 효종 승하 후 상복의례 때의 얘기를 비롯하여 갑인년 광세건의 상소 문제, 서계 이득윤과 조부 양일당, 율곡 선생 종묘종사 의론, 사계 선생 문묘종사 의론, 의종황제 병향(並享)에 관한 것, 서인(西人)의 근원, 신사년 장희빈 처분 후 이십년간의 내용 등을 담았다. 그 외 <천명도고정후어(天命圖考訂後語)>·<논역전(論易傳)>·<복희팔괘문왕팔괘설(伏羲八卦文王八卦說)>·<인물이기동이선후선악지변(人物理氣同異先後善惡之辨)>이다.

권3은 서(序) 1편, 기(記) 1편, 제발(題跋) 7편, 찬(贊) 1편, 제문(祭文) 2편, 묘갈(墓碣) 1편, 행장(行狀) 3편이다. 서는 1702년에 쓴 <사서제요도서(四書提要圖序)>이고, 기는 <화양서원개선액기(華陽書院改宣額記)>이다. 제발은 <제섬계이선생문인록후(題刻溪李先生門人錄後)><sup>43)</sup>·<선

세사실발(先世事實跋)·〈제민박사야화록후(題民朴寺夜話錄後)〉·〈조고양일당유고발(祖考養一堂遺稿跋)〉<sup>44)</sup> 등이다. 찬은 〈군성찬(羣聖贊)〉이다. 제문은 〈제우암선생문(祭尤庵先生文)〉과 〈제이농계문(祭李聾溪文)〉이고, 묘갈은 〈오대조고봉훈랑상의원직장부군묘갈음기(五代祖考奉訓郎尙衣院直長府君墓碣陰記)〉이다. 행장은 〈조고조산대부행영송전참봉부군행장(祖考朝散大夫行永崇殿參奉府君行狀)〉이다. 이 행장 뒤에 〈부지(附識)〉가 있는데, 조부가 학문에 있어 ‘충신 불기(忠信不欺)’를 기본으로 하였다는 것과 조부가 남에게 준 편지에 말하기를, “내 평생 ‘불기(不欺)’ 두 자를 하나의 공부로 삼았네. 소위 ‘불기(不欺)’는 마음에 속임이 없는 것이고 남에게 속임이 없는 것이네”라고 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45)</sup> 그밖에 〈족백증조생원공행록(族伯曾祖生員公行錄)〉<sup>46)</sup>·〈족계증조참봉공행록(族季曾祖參奉公行錄)〉<sup>47)</sup>이 있다.

권4는 부록으로 〈연보(年譜)〉·〈행록(行錄)〉·〈묘표(墓表)〉·〈정문(呈文)〉이다. 행록은 현손 신홍조(申弘祚)가 묘표는 김성환(金成煥)이 지었다. 정문은 유학(幼學) 이중유(李重維) 등이 신응태의 어질고 효성스러운 행실(賢孝之行)에 대한 포상을 청하는 〈정본군성주(呈本郡城主)〉를 비롯하여 모두 6편이다.

끝으로 1968년 9세손 신태선(申泰鮮, 1898~1969)이 지은 발문이 있다. 신태선의 발문에 의하면 유고는 모두 8권이 있었다. 선조의 유고가 민물되어 전하지 않을 것이 두려워 벗 성구용(成九鏞)과 함께 원고와 연보·부록 등을 모아 깔끔하게 고치고 번거로운 것을 줄여 4권1책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나머지 『사서(四書)』·『근사록제요도(近思錄提要圖)』·『사례초요(四禮抄要)』·『측경대(測景臺)』 등의 글은 힘이 미치지 못해 아울러 간행할 수 없으니 후일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 
- 43) 李潛은 文行이 독실하여 사마에 오른 후엔 과거를 일삼지 않았고, 일찍이 行義로 추천되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여 후학들을 이끌어 가르치는 것으로 일삼았다. 또한 이잠의 문하에 登門受學者가 71인 往來講問者가 22인이라고 하였다.
- 44) 조부는 시문에 뛰어났고 평생 저술한 문자가 이에 그치지 않으나 만년에 질병으로 목숨을 연명하던 중 수습하던 사람 중에 자제가 없어 세상에 전하던 붉은 대바구니 두 바리가 버려져 능히 간수하지 못하니 몇 년에 曹叔(신지익의 사위 曹瑗)이 고하지 않고 신고 가버렸다고 하였다. 신응태가 조금 자라 비로소 환추하려고 하였으나 흩어져버려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유문이 많지 않은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고, 당시 왕래하던 집을 찾아 방문하여 겨우 약간 편을 얻어 기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養一堂遺稿』는 전하지 않는다.
- 45) 또한 山內一面 안에 조부가 孝義로 행실을 닦은 후로 부친과 오촌숙 鍊·질촌숙 鑞이 모두 孝義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그 후 金鼎九·鼎五·鼎三 삼형제와 李尙白·俊白 형제, 洪青華와 鄭儀昌의 처 蔡氏, 그리고 그의 아들 鄭渭相이 효행으로 드러났으니 이웃에 살면서 보고 들어 감화된 바라고 하였다. 이어 군자의 流風餘韻이 사람들에게 미침이 멀다는 것을 믿겠다고 하면서, 그런 까닭에 鄉中의 공론이 양일당 신 선생의 효행충절이 風化에 도움 됨이 없을 수 없어 만일 소위 鄉先生을 제사지낸다고 한다면, 마땅히 사당을 세워 받들어 존송하여 이것으로 후학들이 공경하여 본받게 하는 것이 지나친 논의는 아니라고 하였다.
- 46) 생원공은 申櫟(1551~1574)이다. 자는 汝壽로 신평령의 장자이다. 19세에 아우 申櫓와 함께 섬계 이잠에게 배웠고 문필이 뛰어났다. 23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이듬해인 1574년 생을 마쳤다.
- 47) 참봉공은 申榑(1561~1627)이다. 자가 汝閑으로 신평령의 사자이다. 申櫟·申櫓 두 형과 함께 섬계 이잠에게 배웠다. 內資寺 參奉을 지냈다.

## 2) 신응태의 시세계

### (1) 매국음(梅菊吟)과 청담(淸淡)·고절(苦節)

『용애집』에는 매화와 국화를 시료(詩料)로 삼아 읊은 것이 10수 있다.<sup>48)</sup> 전체 37수 중 비교적 비중이 크다.

만년에 소사산에서 지내며  
서귀 앞에 백옥 같은 꽃 마주 대하네.  
맑고 소탈하며 깨끗한 것에 마음의 기약 있으니  
도산의 빼어난 운치보다 못하지 않네.  
蕭洒山居屬暮年, 瓊葩相對几書前。  
淸疎冷薄心期在, 不讓陶山絕致然。  
〈養幽齋盆梅次退溪陶山梅韻奉呈〉, 『龍崖集』 권1

양유재(養幽齋)의 분매(盆梅)를 퇴계의 〈도산매(陶山梅)〉 시에 차운한 것이다. 양유재는 서계 이득윤의 손자이자 둔헌(遯軒) 이홍유(李弘有, 1588~1671)의 차자인 이만제(李萬濟)<sup>49)</sup>로 홍석기·신응사와도 도의(道義)로 교유하였다. 신응태의 증조부가 이잠의 문인이었고 조부가 이득윤의 문인으로 그의 아들 이홍유와 교분이 두터웠기에 두 집안은 대대로 가까이 지냈다. 더욱이 양유재의 집안은 미원 가양리 수락동(壽樂洞)에, 그리고 신응태의 집안은 송동(松洞)에 자리 잡고 살았기에, 양유재는 신응태가 평소 자주 왕래하며 따르던 이웃의 어른이자 시우(詩友)이다.<sup>50)</sup>

1, 2구에서는, 만년에 소사산에 들어와 살던 양유재의 유거(幽居)를 찾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 준다. 시인이 양유재에 들자 마침 그가 서안 앞에 분매(盆梅)를 두고 보고 있었나보다. 2구의 백옥 같은 꽃[瓊葩]은 바로 매화를 말한다. 3구에서는, 맑고 소탈하며 차가울 정도로 깨끗한 매화의 모습과 그런 매화를 닮은 주인을 하나로 보았다. 시인 또한 평소 마음에 담은 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4구에서, 그 모습이 퇴계 도산매의 빼어난 운치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였다.

예부터 매화는 선비들이 가장 사랑했던 꽃으로 한시의 소재로 꽃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선비들이 이렇듯 매화를 아끼고 사랑함에는 외면 보다 그 내면에 담긴 덕을 취한 것이다. 위 시에

48) 이 글에서는 매화와 국화를 시材로 한 것을 특별히 '梅菊吟'이라 하였다.

49) 李萬濟(1628~1677): 자는 汝棹 호는 養幽齋이며 본관은 慶州이다. 경향에서 천거하여 선공감역·동몽교관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慶州李氏派譜』 참조.

50) 〈病中謝壽樂山人書問李尙白〉(『龍崖集』 권1)은 병중에 壽樂山人의 서신 안부에 감사하며 지은 것이다. 수락산인 李尙白(1652~1719)은 양유재 이만제의 장자이다.

서도 말했듯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매화의 맑고 소박하고 깨끗한 모습에서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보았던 것이다.

눈 속에 흥을 타 매화를 찾으니  
다섯 봉오리 중 세 꽃이 차례로 피었네.  
봄바람에 어지러이 붉게 핀 것과 함께 하지 않으니  
쓸쓸한 산가에 그림 같구나.  
雪中乘興訪寒梅, 五蘂三花次第開。  
不與東風紅紫亂, 山家冷淡畫成來。

매화를 보여주기 위한 온갖 뜻에  
이끌려 와 고요한 가운데 보네.  
나의 생 또한 매화처럼 담박하니  
달빛 아래 매향 맡으며 난간에 기대었네.  
爲贈寒葩意萬端, 携來要向靜中看。  
吾生亦似梅花淡, 和月聞香獨倚欄。

매화 가지를 꺾어주기에 시로 보답하니  
두 사람의 심사를 뉘라서 알까.  
원하노니 눈 내린 달밤에 매화를 얻듯  
날마다 서로 따르며 하루도 떠나지 않으려네.  
投以梅花報以詩, 兩人心事有誰知。  
願同雪月梅花得, 日日相隨不日離。

모란은 모두 명성이 있고  
화려하니 어느 것이 춘정을 자아내지 못하랴.  
그윽한 향기 파리한 그림자 천성이 고르니  
세상 사람들 높고 낮음을 평하지 말라.  
魏紫姚黃總有名, 繁華孰不得春情。  
暗香瘦影均天性, 莫向世人高下評。  
〈壬戌臘月之望候紫霞世丈并小序〉, 『龍崖集』 권1

‘임술년 12월 보름에 자하(紫霞) 어른을 기다리며’라는 제하의 시이다. 임술년은 1682년으로 신응태의 나이 40세이다. 제목에 보이는 자하세장(紫霞世丈)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세장(世丈)이라 하였으니 집안의 어른임을 알 수 있다. 자하장(紫霞丈)과 관련하여 〈봉하자하당성(奉賀紫霞堂成)〉에서, 평생 청빈(淸貧)·청진(淸眞)으로 자신을 지켰던 자하 어른이 자하당을 완

공하여 이곳을 장수처(藏修處)로 삼고 천석과 함께 함을 축하한 것이나, 1687년 늦봄에 삼회(三梅)와 함께 지은 시<sup>51)</sup>를 보면, 자하장은 신응태가 살았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목에서도 드러나는바, 위 시는 짧은 서문을 갖추고 있다. 서문에 의하면, 자하 어른 덕에 있는 분매(盆梅)에 비로소 꽃이 피기 시작해 신응태를 부른 것이다. 두 사람은 매화를 보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자하가 신응태에게 간절히 시를 구하였다. 신응태가 글 솜씨가 부족하다고 하자, 자하가, “식물 중에 오직 매화가 최고이니 그 덕이 곧고[貞德] 그 절개가 맑다[清節]. 옛 사람이 매화를 읊었으나 남긴 말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신응태가 “장차 무슨 말로 간곡한 하명에 시를 구할까”하며 난색을 표하니, 자하가, “그렇지 않다. 저 아름다운 산과 고운 물[佳山麗水] 맑은 바람과 밝은 달[淸風明月]은 고금을 통해 음영한 것이 적지 않다. 후인이 말이 없어 읊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능함과 서투름이 있음이니 무슨 근심인가.”라며 재차 권하고 용기를 주었다. 또한 이별에 임하여 한 가지를 꺾어 주며 시의 재료로 삼으라 하니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절구 네 수를 지은 것이다. 끝으로 신응태는 “다만 시격(詩格)이 매격(梅格)의 청고(淸高)함만 같지 못함을 한하며 부족하지만 보답하여 매화시를 구하는 뜻에 줄 뿐이다.”고 하였다.

첫 번째 시는, 눈 속에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하 어른의 집을 방문해 막 피기 시작한 화분의 매화를 보며, 이 꽃 저 꽃 어지럽게 붉게 피는 봄꽃과 달리 추운 겨울 쓸쓸한 산가(山家)에 마치 그림처럼 홀로 핀 매화의 고고(孤高)한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두 번째 시는, 우선 1, 2구에서, 시인에게 매화를 보여주려는 자하의 뜻에 이끌려 고요한 가운데 매화를 감상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어 3구에서는 자신의 삶 또한 담박한 매화를 닮았음을 말하며, 달빛 아래 난간에 기대어 매화 향기에 취한 모습을 그렸다. 선비들이 매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3, 4구의 담(淡)·향(香) 두 글자가 말해주듯, 다른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담박함과 그윽이 풍기는 향(暗香)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구나 달빛이 내릴 때 듣는 매향에 취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시는, 앞서 서문에서 살펴보았듯, 매화시를 구하는 자하의 뜻에 재주 없음을 이유로 재차 사양하며 난색을 표하는 시인에게 거듭 용기를 주며 끝내 매화시를 이끌어 내는 두 사람의 심사를 누가 알겠느냐고 하였다. 이어 3, 4구에서, 눈 내린 달밤에 매화의 모습처럼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최상의 조화를 보여주듯, 날마다 서로 따르며 하루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서문에서 살펴본바 자하는, 집안 어른으로서도 그리고 시를 나누는 벗으로서도 신응태

51) 申應泰, <丁卯暮春三梅柳叔過余同訪紫霞丈溪石上聯句>, 『龍崖集』 권1. “작은 시내에 꽃이 피고 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날은 따뜻하고 바람 고우며 비가 비로소 걷히네. 고운 새가 때 맞춰 깊은 숲에서 우니, 화답하여 벼를 불러 봄나들이 하네 小溪花發水東流(三梅), 日暖風和雨始收(拙句), 好鳥時鳴深樹裡(三梅), 從和喚友作春遊(拙句)”. 제목에 보이는 三梅 柳叔은 文化人 柳尙文으로 여겨진다. 유상문은 從祖 申之仁의 만사위로 신응태에게는 堂姑母夫다. 이흥유의 <次柳尙文>(『遜軒集』 권4)에 의하면 유상문은 당시 松谷에 살았다.

에게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고마운 분이기에 따르려는 것일 게다.

네 번째 시는, 우선 1, 2구에서 좋은 평판과 타고난 화려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모란에 대해 말하였다. 1구의 위자요황(魏紫姚黃)은 모란을 말한다. 이어 3, 4구에서는 모란과 대비되는 매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모란처럼 화려하지도 향기롭지도 못하여 춘정을 자아내지는 못하지만, 매화의 그윽한 향기와 파리한 그림자[暗香瘦影]는 사람에게 견주면 천성이 고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높고 낮음을 함부로 평하지 말라고 한다. 위 시야말로 시인과 매화를 일치시켜 감정이 이입된 상태를 보여준다. 초시에 여러 번 입격하고도 끝내 운이 없었던 그였기에 부귀한 모란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매화처럼 천성이 고르고 담박한 성정을 지녔으니 멋대로 사람을 평하지 말라는 자위(自慰)·자부(自負)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다음은 국화를 소재로 한 것이다. 매화와 함께 국화 또한 선비들이 사랑했던 꽃이다.

초목은 우거져 붉고 누런데  
완상하는 마음 하필 고고한 향 기다리네.  
은근한 정 붙여 뜰 앞에 심고  
홀로 서리에 굽히지 않는 맑은 향을 보네  
草樹葱蘢各紫黃，賞心何必待孤芳。  
慙慙爲向庭前植，看取清香獨傲霜。  
〈種菊〉, 『龍崖集』 권1

1구에서 초목이 붉고 누런빛을 띠었다고 하였으니 어느덧 가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구에서는 국화를 심은 뜻을 말하였다. ‘대고방(待孤芳)’에서 알 수 있듯 바로 국화가 지닌 고고한 향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3, 4구에서는, 은근한 정을 붙여 뜰 앞에 국화를 심어놓고는, 서리가 내려 온갖 초목이 제빛을 잃고 사라질 때도 오직 국화만은 그 된서리에도 아랑곳 않고 홀로 맑은 향을 풍기는 모습을 본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 국화를 비유하여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 하였는데, 시인 또한 국화가 지닌 고방(孤芳)·청향(清香)의 고절(孤節)을 사랑한 것이다.

국화는 명품이 최고로 많은데  
다만 옅은 황색을 띤 것에 있지 희고 붉은 것은 흠이라네.  
잠시 섬들에 나가 한번 빌려주어  
즐겨 이웃에 나눠 보게 하네.  
菊花名品最多般，只有微黃欠白丹。  
暫向清階容一借，肯教隣舍得分看。  
〈雨中呈養幽齋索紅白菊二種〉, 『龍崖集』 권1

우중에 홍국(紅菊)과 백국(白菊)을 찾는 양유재(養幽齋)에게 올린 것이다. 예부터 국화의 정색은 황색(黃菊)으로 보았는데, 시인도 1, 2구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명품으로 치는 국화는 옅은 황색을 띤 것이지 희고 붉은 색을 띤 국화는 그 자체가 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 마침 이웃에 사는 양유재가 찾아와 홍국과 백국을 찾는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3, 4구에서, 시인이 잠시 섬돌에 나가 뜰에 있는 국화를 보여주며 맘껏 감상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국화 하나를 놓고도 이렇듯 시정(詩情)이 넘친다.

화분에 활짝 핀 국화를 몹시 사랑하나니  
서리를 견디는 굳은 절개 세한의 자태로다.  
주인은 도연명의 맑은 흥치 대하여  
한가히 거문고 뜯으며 시를 짓네.  
酷愛滿開盆底菊, 凌霜苦節歲寒姿。  
主人對(缺)陶清興, 閑弄瑤琴剩賦詩。

옛날에 국화를 사랑한 이는 도연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의 나 또한 유독 좋아하네.  
누렇고 흰 것 중 더 예쁜 것을 분별치 못하니  
서리 후에도 고운 모습 보기 좋아서라네.  
愛菊昔聞陶靖節, 如今吾亦獨偏憐。  
黃白嫩葩須莫辨, 好看霜後作春妍。  
〈詠盆菊〉, 『龍崖集』 권1

분국(盆菊)을 읊은 것으로 2수이다. 첫 번째 시 1, 2구 역시 국화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였다. 1구의 ‘혹애(酷愛)’라는 말에서 시인의 국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구에서 말한다. 역시 국화의 서리를 견디는 굳은 절개[凌霜苦節]를 사랑한 것이다. 세한송(歲寒松)처럼 세한국(歲寒菊)의 자태를 칭송한 것이고, 그러한 국화의 굳은 의지를 닮고 싶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어 3구는 한 글자가 빠졌지만 시상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화분에 활짝 핀 국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그 옛날 국화를 사랑했던 도연명의 맑은 흥치[清興]를 떠올리고, 한가히 거문고 뜯으며 시를 짓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 시 또한 1, 2구에서, 옛날에 국화를 사랑한 이는 도연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의 나 또한 유독 좋아한다고 하였다. 2구의 국화에 대한 치우친 사랑[偏憐]은 위 첫 번째 시의 ‘혹애(酷愛)’에 다름 아니다. 이어 3구에서는 누렇고 흰 국화 중 어떤 것이 더 예쁜 지 분별치 못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앞서 살펴본바, 신응태는 황국(黃菊)을 명품으로 보았고 백국과 홍국은 흠이라 하였지만, 워낙 국화 사랑이 깊은 시인에게 색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어지는 4구에

서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으니, 서리 내린 후에도 여전히 고운 모습 때문이다.

시인은 국화가 활짝 핀 좋은 때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국화를 완상하는 모임을 열고 그 감회를 시로 남겼다.

쓸쓸히 홀로 지내다보니 친구가 드문 것을 깨달아  
홀로 달빛을 희롱하는 늦가을에 핀 국화를 대하네.  
문득 북쪽 이웃에 좋은 일 있음을 알고  
거문고와 술을 갖고 내 집 사립 찾아주네.  
索居偏覺故人稀，獨對寒花弄月輝。  
頓覺北隣能好事，爲携琴酒款柴扉。  
〈五種菊栽盆并小序〉, 『龍崖集』 권1

위 시는 짧은 서문[小序]을 아울러 갖추었다. 서문에 의하면, 다섯 종류의 분국(盆菊)이 바야흐로 성하게 피어 색이 서로 빛나니 가히 사랑할 만하였다. 된서리가 내린 후에 여러 방에 들이니 늦은 계절인데도[晚節] 오히려 쇠하거나 시들지 않아 족히 한가한 중에 기이한 완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시월 보름에 이웃에 사는 양유장(養幽丈)이 술병을 차고 거문고를 끌고[佩壺携琴] 달을 타고 눈을 밟으며[乘月步雪] 꽃을 완상하기 위해 왔는데, 이때 두 현사(賢士)가 따랐다. 국화가 핏에 술잔 잡고 거문고 소리 들으며 한담을 하니 이 또한 산가(山家)의 하나의 아름다운 모임이라. 밤은 이미 무르익고 달은 기울어 다시금 저마다 돌아가는데, 덕수(德叟)와 함께 산길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길 중간에서 보내고 돌아와 절구 한 수를 읊어 기록한다는 것이다. 덕수는 가정 신응속이다.

위 시 1, 2구에서는, 쓸쓸히 산가에서 홀로 지내는 시인이 늦가을에 핀 국화를 대하여 완상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어 3, 4구에서는 문득 북쪽 이웃에 좋은 일 있음을 알고 거문고와 술을 갖고 내 집 사립을 찾아주었노라고 하였다. 이때 신응태의 집을 찾아준 이는 모두 네 명으로 양유장과 두 선비<sup>52)</sup> 그리고 신응속이다. 그리하여 이날 가회(佳會)에 참석한 사람은 주인 신응태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명이다. 물론 3구의 좋은 일[好事]이란 국화가 핀 것을 말함이다. 누가 먼저 칭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사들의 아회(雅會)다.

이상 매화와 국화를 읊은 시에서는 두 꽃의 외면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그 내면에 담긴 덕을 취해 사랑하였음을 얘기하였다.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매화의 맑고 깨끗한 모습에서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매화의 청담(淸淡)하고 고고한 모습처럼 평생

52) 이때 양유장을 따라온 두 현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양유재의 두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신응태는 李尙白·俊白 형제의 호행에 대해 말한 바 있고, 특히 장자 이상백과는 시로 교류하였다. 주석 45)·50) 참조.



그 뜻을 천성으로 지니고 살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었다. 또한 늦은 계절에도 쇠하거나 시들지 않는 국화의 세한(歲寒)의 자태와 고절(苦節)을 사랑하며 군자로서 맑고 굳은 의지를 평생 견지하겠다는 삶의 지향을 보여주었다.

## (2) 화양음(華陽吟)과 학원(學源)·존모(尊慕)

『용애집』에는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을 읊은 시가 몇 수 있다.<sup>53)</sup> 신응태는 25세인 1667년에 회덕에 가서 우암 송시열을 처음 만난 후로 화양동과 회덕을 오가며 왕래 강문하였다. 그 후 송시열이 해배되어 화양동으로 들어가자 1681년부터 1683년까지 화양동으로 네 차례 찾아갔다. 그리고 1684년 4월에는 과거를 폐하고 화양동에 들어가 스승께 예를 올린 후 성리학에 전념한다.

한번 화양동에 들어와 보니  
 높은 집 아스라이 바위에 기대 열려있네.  
 흐르는 물결은 문장의 웅혼함을 상상하겠고  
 높은 산은 오히려 도덕이 높음을 알겠네.  
 자리 위의 어른은 한 덩어리의 화기가 움직이는 듯  
 문 앞에 한 자 넘게 쌓인 눈이 꽃처럼 사라지네.  
 오늘에야 몸소 닮은 뜻을 부끄러워하나니  
 공간함을 어떻게 마름질할 것인가.  
 一入華陽洞裡來，高齋隱約倚巖開。  
 波瀾可想文章渾，山峻猶知道德巍。  
 座上一團和氣動，門前盈尺雪花堆。  
 如今愧蔑躬修志，狂簡何由得所裁。  
 〈華陽洞謁尤庵先生〉, 『龍崖集』 권1

겨울에 화양동에서 스승을 뵈고 그 감회를 적은 것이다. 앞서 생애에서 살펴본바, 1681년(39세) 겨울일 가능성이 크다. 수련의 ‘고재(高齋)’는 지금의 암서재(巖棲齋)이다.<sup>54)</sup> 함련에서는 화

53) 이 글에서는 송시열과 화양동을 詩材로 한 것을 특별히 ‘華陽吟’이라 하였다.

54) 송시열은 60세인 1666년 4월 황산(강경 황산)에서 화양동으로 이주하여 청천면 도원리에 있던 전 관찰사 黃瑞의 정자인 枕流亭을 빌려 살았고, 그 해 8월 화양동으로 들어가 현재 서원 아래에 있던 華陽溪堂에서 지냈다. 계당은 5칸 초당이다. 그 후 3년 뒤인 1669년 화양 4곡인 금사담 암벽 위에 서재를 짓고 강학을 하니 그것이 지금의 암서재이다. 초당보다 북쪽에 위치하여 北齋라고도 하였다. 송시열이 1669년 12월에 지은 〈華陽洞巖上精舍吟〉(『宋子大畧』 권2)에는 ‘巖上精舍’라 하였다.

양천을 흐르는 물결의 장대함에서 스승의 웅혼한 문장을 상상할 수 있고 높은 산의 모습에서 스승의 높은 도덕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화기(和氣)의 움직임에 통해 송시열의 부드러운 모습과 아울러 이인적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평소 엄격하기만 할 것 같았던 스승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직접 가까워서 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sup>55)</sup> 그리하여 한 자 넘게 쌓인 문 앞의 눈이 따스한 햇살과도 같은 스승의 기운에 꽃처럼 사라지듯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자리 또한 화기에애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응태가 이 대목에서 ‘기(氣)’ 관련 고사를 끌어온 것은, 마치 이인(異人)과도 같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이다.<sup>56)</sup> 미련의 ‘광간(狂簡)’은 뜻만 크고 실제 일에는 소략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나름 공부한다고 했지만 스승을 모시고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거친 공부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 것이다.

미로를 달려 많이도 부끄러웠는데  
 이제 다행히 높은 산 우러르네.  
 뒤를 이어 주자와 정자의 후예로  
 성리 사이를 구하네.  
 자신에게 돌이켜 모름지기 핵심으로 돌아가니  
 물을 보려면 여울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네.  
 구업이 거칠고 허술함을 탄식하니  
 새 공업을 감히 등한히 하랴.  
 多慚走迷路，茲幸仰高山。  
 躡武朱程後，求聞性理間。  
 反躬須反約，觀水悟觀瀾。  
 舊業嗟疎鹵，新功敢等閑。  
 〈謹次栗谷呈退溪詩韻呈尤庵先生道案〉, 『龍崖集』 권1

올곡이 퇴계에게 올린 시를 삼가 차운하여 우암 선생 도안에 올린 것이다. 신응태가 본격적으로 송시열의 제자가 되어 집지례(執贄禮)를 올린 것이 그의 나이 42세인 1684년 4월이니, 위 시는 바로 이 무렵에 지은 것이다. 부친의 명으로 부득이 과장을 출입했으나 이때에 이르러 과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끊고 드디어 우암 선생 문하에서 성리학 공부에 전념하기로 하였는데,

55) 程明道가 홀로 앉아 있을 적에는 석고상처럼 보이다가도 일단 사람을 접하면 한 덩어리의 화기[一團和氣]가 뭉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유명한 고사가 있다. 『二程全書』 권12.  
 56) 성해응의 〈華陽洞記〉에, “들으니 산중에 매번 큰 눈이 내리고 계곡이 얼어붙어도 선생께서 거처하시던 집에는 기와의 눈이 모두 녹는다고 한다 聞之山中每大雪，林壑凍閉，而先生所臥之屋瓦雪皆融”는 이야기 또한 송시열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氣로 인한 이인성의 발현과 이로써 우암의 기인적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拙稿, 「성해응의 〈華陽洞記〉에 드러나는 우암과 화양동」, 『우암논총』 제3집,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10, 86-87쪽 참조.

그 마음이 절절이 드러나 있다.

수련의 ‘주미로(走迷路)’는 오랜 세월 과거 공부에 매달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고, ‘양고산(仰高山)’은 이제야 비로소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하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시경』에 ‘고산양지(高山仰止) 경행행지(景行行止)’라 하였다. 인(仁)을 좋아함은, 인(仁)의 그릇은, 무겁고 그 길이 멀기 때문에 ‘높은 산 넓은 길[高山景行]’과 같다. 그러하기에 오직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행하려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 그쳐서 옮기지 않는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산’은 ‘높은 덕’을 말하며 곧 스승 송시열을 가리킨다. 고상한 덕행이 있으면 천하 사람들이 이를 사모하여 우러르고 따르게 된다. 신응태 또한 고산과 같은 ‘고덕(高德)’을 지닌 스승을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이어 함련에서 신응태 또한 정자와 주자와 후예로 성리학 공부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송시열은 평생 주자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고 주자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 저술에 힘을 기울였다. 그런 스승을 모신 제자로 신응태 또한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갈 것이니, 주자성리학과 우암 송시열이 그의 학문적 연원임을 천명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신응태는 스승 송시열의 글[宋子之書]을 가장 좋아하여 동정어묵(動靜語默)에 한 가지로 법 삼았는데, 그 스승이 평소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모두 주부자(朱夫子)로써 기준을 삼았다 하였다. 그러니 이는 스스로 자신의 학문적 연원[學源] 또한 주자성리학에 두고 주자-송자-용애로 인식하는 도통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하여 경련에서, 스승의 평소 가르침을 받들어 학문을 하되 궁극적으로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널리 배우며 근원을 궁구하겠다고 한다. 미련에서는 구업(舊業)과 신공(新功)이 대를 이루어 거칠고 허술했던 지난날의 공부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한 성리학 공부를 제대로 해보리라 다짐한다.

함께 따라가 선생님을 모시고  
승경을 가려 멀리 수석 사이를 찾아가네.  
산신령 또한 아름다운 작품 머물게 하니  
안개 걷히자 이슬에 젖은 듯 봉우리 나타나네.

追隨杖屨共提攀，選勝遙尋水石間。

山靈亦解留佳玩，捲却烟霏露衆巒。

〈同黃江權持平農巖金清風陪尤庵先生遊巴串是朝有雨意向晚開霽〉, 『龍崖集』 권1

황강 권상하, 농암 김창협과 함께 스승을 모시고 파곶(巴串)에서 놀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생애에서 살펴본바, 신응태는 1685년(43세) 1월 조부 양일당의 행장을 가지고 화양동에 들어가 송시열에게 묘표를 청하였다. 그러나 이때 송시열은 권상하와 함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劄疑)』를 교정하느라 묘문을 엮을 틈이 없었다. 이에 다시 3월에 화양동에 가서 스승을 뵈고 거듭 묘문을 청하였다. 이때 화양동에서 하루 머물며 파곶에 모시고 가서 놀다 돌아와 환장암(煥章

庵)에서 잤는데, 위 시는 바로 이때 지은 것이다. 1, 2구는 권상하·김창협과 함께 스승을 모시고 화양계곡을 거슬러 올라 9곡인 파곳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화양계곡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희고 넓은 반석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위로 물이 흐른다. 3, 4구는 다소 신비한 화양동의 모습을 그렸다. 제목에 드러난바, 이날 아침 우기(雨氣)가 있었는데 해질 무렵 맑게 개었다. 그리하여 4구에서 말한, 비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난 이슬에 젖은 봉우리들의 모습이야말로 3구에서 말한바, 산신령이 보낸 아름다운 작품[佳玩]이라는 것이다.

옛날 화양동 서재 아래서 찾아뵈었는데  
남겨주신 뜻 거두려니 노년이 되었네.  
뜬 인생 십년에 인사도 바뀌어  
밤새도록 경서를 안고 길게 탄식하네.  
華陽齋下昔趨隅, 收拾遺餘指暮途.  
浮世十年人事變, 抱經終夕謾長吁.  
〈憶華陽舊遊有感〉, 『龍崖集』 권1

송시열 사후 화양동에서 옛날 놀던 일을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1구의 화양동 서재는 바로 암서재를 말한다. 암서재는 1715년 청주목사 김진옥(金鎭玉)이 중건하였고, ‘암서재(巖樓齋)’라는 현판은 1721년 김진옥이 제천 황강에 있던 권상하에게 부탁하여 건 것이다. 2구의 남겨주신 뜻[遺餘]은 결국 성리학 공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일 것이다. 송시열은 신응태의 높은 학업과 기절(氣節)을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사장지학(詞章之學)으로는 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다.<sup>57)</sup> 그러니 제자가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여 글 쓰고 문학하는 자세 또한 새롭게 가다듬기를 바랐을 것이다. 3구에서 ‘뜬 인생 십년’이라 하였다. 송시열이 168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 후로 10년인 1699년 정도로 여겨진다. 2구에서도 이미 노년[暮途]이 되었다고 하였는바, 이때 신응태의 나이 57세이다. 4구에서는, 스승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평소 스승의 유음(遺音)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경서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그렸다.

고운 골짜기와 지나는 구름 동부에 머물고  
푸른 못과 차가운 달빛 검은 장막을 비추네.  
유택에 임하여 초상을 우러러보니  
당년의 강학하던 때인 듯하네.  
玉峽雲行留洞府, 碧潭寒月映緇帷.  
仰瞻遺像臨遺宅, 恍若當年講學時.  
〈華陽舊宅謁尤庵老先生畫像〉, 『龍崖集』 권1

57) 金成煥, 〈墓表〉, 『龍崖集』 권4.

화양동의 옛 집에서 스승의 화상을 뵙고 지은 것이다. 제목에 보이는 화양구택(華陽舊宅)은 현재 화양서원 아래 있던 화양계당(華陽溪堂)을 말한다. 이 서재에서 송시열이 살았고 서책·연갑(硯匣)·장죽(杖簇)·기형(璣衡) 등의 유물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영정도 처음에는 이곳 서재에 봉안했다. 그 후 1710년 화양동 밖 만경대에 있던 서원을 지금의 만동묘 아래로 이전하면서 영정도 화양서원으로 옮겼다.<sup>58)</sup> 그러니 위 시는 1710년 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승 사후 다시 화양동을 찾은 제자 신응태에게 화양동의 산수자연은 그 자체로 스승 송시열을 상징한다. 그러하기에 고운 골짜기와 지나는 구름 푸른 못과 차가운 달빛 그 무엇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옛 집에 이르러 초상을 뵈니 가까이 모시고 공부하던 때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럴 수록 다시는 뵈지 못할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친다.

이상 송시열과 화양동을 읊은 시에서는 자신의 학문적 연원을 인식하여 스승의 유음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스승 송시열에 대한 존모(尊慕)의 마음을 드러낸다.

## 4. 맺음말

신응태는 청주 미원에서 활동한 조선후기의 학자이자 문인이다. 효문의 후손으로 태어나 부친의 뜻을 받들어 과업에 힘쓰고 평생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조부와 부친의 행적을 현양하는 등 계술(繼述)의 효를 다하였다. 우암 송시열의 제자가 되어 학문의 길은 주자를 종주로 삼아 성리학에 전심하였다. 스승 송시열의 글을 가장 좋아하였고 ‘당리무사(當理無私)’ 네 글자를 평생 공부로 삼았다. 학문에 정통하고 밝으며 도덕은 높고 깊어 우암의 고족(高足)으로 인정 을 받았다.

신응태는 청빈자수한 선비였다. 시운이 돌보지 않아 평생 처사로 지냈지만 효우와 학문이 향방(鄉邦)에서 칭송되었고 화양(華陽)의 고제(高弟)로 동문 제현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견문과 학식이 넓고 의지와 기개가 높아 용에 선생(龍崖先生)으로 일컬어졌으며 만년에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여 훌륭한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신응태가 교유한 인물은 대부분 우암 송시열에게 배운 동문과 동향의 향유들이다. 스승과도 같은 만주 홍석기를 비롯하여 이수언과는 평생 지기(知己)로 시교(詩交)가 빈번하였고, 이기홍과는 왕래하며 교의가 깊었으며, 권상하와 김창협과도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유하였다. 한편 자하장·양유재 이만재 등과는 가까이 살면서 망년(忘年)의 시우(詩友)로 지냈다.

신응태는 학문하는 틈틈이 글을 배우며 문단에서 노닐었다. 비록 다작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그의 문장을 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남긴 37수의 시는 그 풍격이 청고(淸高)하

58) 한기범, 『우암 송시열의 생거지와 적거지』, 누마루, 2014, 301쪽.

다. 그 중 매화와 국화를 시재로 한 ‘매국음(梅菊吟)’에서는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매화의 맑고 깨끗한 모습에서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늦은 계절에도 쇠하거나 시들지 않는 국화의 세한(歲寒)의 자태에서 군자의 맑고 굳은 의지를 읽어내었다. 그리하여 매화와 국화의 청담(淸淡)·고절(苦節)을 사랑하며 그 덕을 평생 견지하려는 삶의 지향을 보여준다. 송시열과 화양동을 읊은 ‘화양음(華陽吟)’에서는 주자-송자-용애로 인식되는 자신의 학문적 연원을 드러내며 스승의 유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스승 사후 강학과 청유의 현장인 화양동을 돌아보며 스승 송시열에 대한 존모(尊慕)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

## 참고문헌

---

- 宋秉夔, 『華陽淵源錄』(국립중앙도서관).
- 宋時烈, 『宋子大全』(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 申應泰, 『龍崖集』(국립중앙도서관).
- 李秀彦, 『聾溪先生遺稿』(국립중앙도서관).
- 李弘有, 『遜軒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 洪錫箕, 『晚洲遺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 『光海君日記』(한국고전번역원 DB).
- 『肅宗實錄』(한국고전번역원 DB).
- 『新增東國輿地勝覽』.
- 『鵝洲申氏大同譜』.
- 『慶州李氏派譜』.
- 『平康全氏派譜』.
- 김용남, 「성해응의 〈華陽洞記〉에 드러나는 우암과 화양동」, 『우암논총』 제3집,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10.
- , 「聾溪 李秀彦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연구』 제23호, 한국한시학회, 2015.
- 한기범, 『우암 송시열의 생거지와 적거지』, 누마루, 2014.